

기업체내 공정거래 제도 전담기구 설립 확산

본협회 조사부

공정 거래 제도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이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책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를 하도록 관련 시책에 중점을 두면서 많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와의 협력 관계 확산과 공정거래 제도 운영을 위한 최고정책 결정기구인 공정거래자율 실천 기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율준수편람과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등 사내 공정거래 제도의 자율적인 운영기구인 사내 공정거래추진위원회는 현재 LG그룹과 (주)유공, (주)미원, 한국통신공사와 한화중합화학(주) 등 주로 대기업들이 설치하여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실천기구의 명칭은 공정거래추진위원회나 공정거래 대책실, 공정거래 실천위원회 및 공정문화추진실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요 기능은 회사의 공정거래 추진 방침이나 공정거래 업무와 관련한 각 사업장 및 부서간의 중요 경영정책의 조정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자율실천기구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에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사장이, 각 사업부서의 장이상이 위원으로 그리고 공정거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 간사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실천기구를 설치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탐방 구체적인 운용내용을 살펴보았다.

LG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윤리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LG 공정문화추진위원회"의 설립과 "공정거래자율준수 체계의 구축"이다. LG그룹은 이미 95년 3월 경쟁업체와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제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LG공정문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다.

LG공정문화추진위원회는 주로 공정거래 업무 추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내 교육에 주력해 왔으며 그룹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 업무지침서인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특히 금년 4월 2일부터 7일간 공정문화추진위원회 실무자급으로 일본 기업의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일본내에서 가장 모범

적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전기 주식회사와 스미도모화학주식회사를 방문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LG그룹내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LG그룹의 공정문화추진위원회는 경쟁라운드의 본격적인 전개에 대비하여 선진기업들의 공정거래제도 운용상황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주)유공은 95년 7월, 공정거래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사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 사내 방침을 결정하고 동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수립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의 공정거래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공정거래 선언문과 임직원이 공정거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준수 편람을 작성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 운영방침 등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각 사업부서에서 체결하고 있는 계약서 중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거래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과 공정거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주)미원은 1995년 8월 16일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8명과 간사로 구성하고 있는 공정거래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6년 3월11일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와 위원을 13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주)미원은 공정거래추진위원회를 통해 사내의 공정거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사내에 전파하는 등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부당 스카웃이나 내부 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및 홍보를 통해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리점과의 거래 내용에 공급계약상의 지역 제한이나 거래 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 내용이 있는지 등의 자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원은 경영 및 기술 지도, 현금결제 확대등의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는 공정거래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주)는 금년 1월 13일 공정거래실천위원회를 설립, 범위반 행위를 신고 접수하여 처리함으로써 각 사업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각종 계약서 및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선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화종합화학(주)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실천 우수 부서에 대하여서는 포상을 하고, 위반 부서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함으로써 전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주)는 공정거래실천위원회 조직을 더욱 확대시켜 상설 조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통신은 통신 분야가 경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공정경쟁 관련업무의 강화와 공정경쟁 관련부서의 전문화 및 조직화를 도모하는 한편 타사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5일 공정거래대책실을 설치하였다.

한국통신이 공정거래대책실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정부가 그동안 독점체제로 운영하여 오던 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면서 한국이동통신과 데이콤 그리고 신세기이동통신등 신규통신 사업자가 시장참입을 함으로써 그동안 한국통신 내에 내재하여 왔던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한국통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통신은 지난해 12월에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회계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경쟁사업자와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 금지 등으로 공정한 경쟁증진과 상호 접속의 원활한 추진등을 통한 사업자 협력 관계의 촉진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공정경쟁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공정거래대책실은 세부적인 공정거래 실천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써 크게 공정경쟁을 위한 전사적인 계획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며 타사업자 협력 관계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이 사내의 공정거래 대책기구를 통해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준수 의지를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각 사업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에 대한 미흡한 부분의 보완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구매 대금의 현금 결제 한도액을 확대시키는 등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례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정부가 강제적인 규제방법으로 운용되는 것 보다는 민간업계가 자율적으로 질서확립에 참여하는 방법이 보다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고 본다. 민간 업계에서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공정경쟁질서의 정착에 밝은 전망을 준다고도 할 수 있다. ■